

오늘 밤에 자율돔관을 열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동네 예보이다. 그림 1처럼 밤에 강수확률이 연이어 0 0 0 인 것은 관측에 아주 바람직한 날씨이다. 물론 강수확률이 0인 것과 구름이 0인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대체적으로 둘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가 가장 쉽게 구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강수확률 체크를 통과했다면 바로 다시 눈여겨 봐야할 것이 습도이다.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게도 새벽에 쉽게 이슬이 맺히며 안개가 낄 가능성도 높고 구름이 형성될 확률도 높다. 대체적으로 밤 동안 최대 습도가 90%가 넘으면 강수확률도 0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80%를 넘으면 관측하기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다. 만약 가장 습도가 높을 때도 70% 이하로 예측된다면

이는 만족할만큼 건조한 날씨에 속한다. 위의 사례는 그런대로 괜찮은 조건인 셈이다.

### 시정 관측자료

사실 동네예보는 대부분 평소에도 확인하는 자료일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아침에 우산을 챙길지 말지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다. 동네예보를 봤을 때 관측할 만하다 싶으면 다음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료는 관측시정 자료이다.(그림 2) 기상청에서 관측자료-지상 관측자료에 가면 도시별 관측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관측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시정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는 시정을 통해 대기질-대기중에 얼마나 오염물질이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낮 시간에 시정이 20km로(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는 25km까지 측정되기도 한다) 측정된다면, 이는 관측하기에 대기질이 충분히 깨끗함을 의미한다. 다만 밤에는 안개 등으로 시정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이를 주의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습도를 체크하였다. 그리고 시정 옆에 있는 운량도 같이 눈여겨 봐 두자.

### 위성영상

이제 동네예보와 시정 관측자료로 구름의 양과 대기질을 체크했으면, 앞으로 구름이 어떻게 변할지를 위성 관측자료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 날씨영상 - 기본영상에서 한반도의 위성관측영상을 볼 수 있다.(그림 3) 기본적으로 적외영상을 보게 되어있는데, 적외영상이 구름 체크에 제일 적합하다. 가시영상도 훌륭한 자료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밤에는 관측자료 생산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반도는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황해 또는 중국지역에 대규모의 구름이 보인다면 관측의 꿈을 접는 것이 좋다. 좀 더 살펴보자면, 위성영상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시간동안의 15분 간격 영상을 통해 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몇 시간 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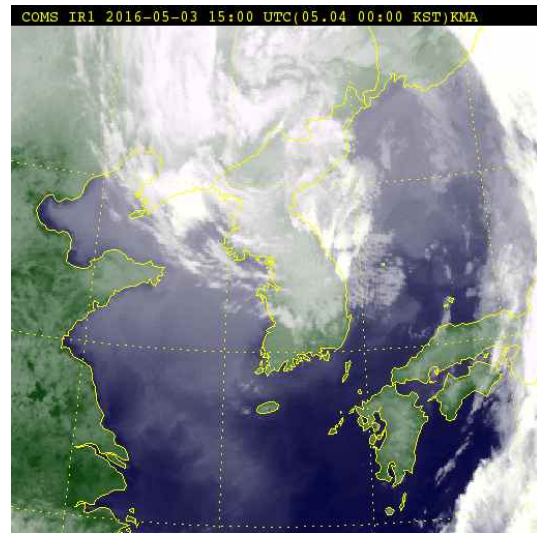


그림 3 위성영상 예시



그림 4 먼지관측농도 예시

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밤이 되었을 때 서울 상공에 구름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해 볼 수 있다.

### 보조자료의 확인

동네예보, 시정관측자료, 위성영상을 보면 자율동관을 열어야 할지 말지 보통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강수확률이 10%라거나, 시정이 18km라거나, 위성 영상을 보면 뿌옇다거나 혹은 기타 많은 이유로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추가적인 보조자료도 확인하여 판단하면 좋다.

## 먼지관측농도

네 번째로 체크해 볼 자료는 먼지관측농도 자료이다.(그림 4) 기상청에서 황사 탭을 들어가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0\mu\text{g}/\text{m}^3$  이하인 것이 관측환경에 바람직하다. 이는 특히 봄철 대기질 파악에 유용하다.

## 분석일기도

다섯 번째 자료는 일기도 자료이다. 일기도 자료는 날씨영상 탭의 분석일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매우 강한 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기상청에서는 지상분석일기도를 제공하는데, 맑은 날씨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고기압의 영향 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기압이라고 항상 구름이 없는 것만은 아니므로, 그저 참고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붉은 화살표는 상층의 제트류를 표시한 것인데, 이 제트류는 하층의 구름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한 구름의 진로를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분석일기도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결국 보조자료 이상의 역할을 하긴 어려워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 통보문

여섯 번째 자료는 통보문이다. 통보문은 특보·예보 탭의 통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수의 통보문들이 하루동안 올라오지만, 여기서 [속보], [특보]는 무시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정보]를 클릭한다(그림 6). 통보문은 마치 뉴스 일기예보를 글로 옮겨놓은 듯한 문구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다음 날 오전에 안개가 일어날지 친절하게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안개가 생길지 말지 걱정되는 날씨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전국 예보 통보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통보문도 따로 제공되므로, 더 국지적인 정보를 원하면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통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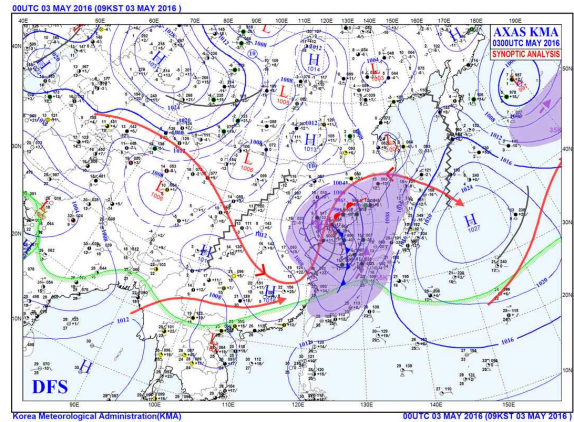


그림 5 분석일기도 예시

그림 6 통보문 예시

경우에 서해안과 도서상에 안개가 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심치 않게 중부내륙지방에서 밤과 새벽사이 안개가 끼겠다고 통보를 해주는데, 관악산 기슭과 백마고지, 수피령 등지는 바로 그 중부내륙지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가 있을 때에는 안개에 대한 각오를 하고 관측을 하던가, 포기하는 것이 답이다.

## 끊임 없이 노력하라!

끝으로 날씨의 확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측에 대한 열정임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고 싶다. 구름 낀 날씨 와중에서도 잠시 한두시간 하늘이 열려 원하는 사진을 찍거나, 관측의 성공한 경우를 더러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기회는 늘 하늘을 쳐다보며 간절히 별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오는 것이다. 아무리 기상청 자료를 열심히 본다고 해도 관측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위의 내용은 의미를 잃을 것이다.